

“경기 불투명 불구 수출확대 다짐”

화학기업 · 그룹 시무식 ... 경영목표 달성 위해 적극적 투자방침 공표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 등 재계가 2004년 1월2일 일제히 신년하례를 겸한 시무식을 갖고 갑신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국내기업들은 2004년 정치자금 수사, 환율하락, 신용카드 문제 등 불투명성이 남아 있지만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매출 및 수출확대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겠다는 경영구상을 제시하고 임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삼성은 1월2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이근희 회장과 재경임원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갖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면서 그룹의 발전을 다짐했다.

이근희 회장은 계열사별로 2일 또는 5일 열리는 시무식에 전달한 신년 메시지를 통해 새해 경영화두를 “글로벌 일류기업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경영력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세계시장을 리드하는 1등 제품을 확대하고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현지 중심의 1등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도 위커히호텔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가졌다.

손길승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계미년 SK는 예기치 않았던 일련의 사태로 사회에 물의를 빚고 수많은 임직원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성장과 도약의 근간이었던 SK가치에 대한 재무장을 통해 역사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자”고 다짐했다.

시무식에는 최근 경영복귀 의사를 밝힌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SK텔레콤 부사장과 최창원 SK케미칼 부사장 등 오너 일가와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전 8시 서울 신문로 그룹본사 17층에서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 변경 뒤 처음으로 갖는 단배식을 갖고 새 도약을 다짐했다.

한화그룹은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으며 김승연 회장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경영환경 속에서 생명력 있는 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생존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그룹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금융센터에서 김준기 회장과 각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갑신년 새해 그룹의 힘찬 전진을 다짐했다.

효성그룹은 1월1일 오전 서울 본사에서 조석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식을 열었고 2일 오전에는 별도의 시무식 없이 직원들끼리 떡을 나누며 신년인사를 가졌다.

대림그룹은 대림산업 본사에서 주계열사 임원급 120명이 모여 조출한 신년인사회를 가졌으며 이용구 사장은 “2004년에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 보이지만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며 내실경영, 가치중시경영, 정도경영을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시무식을 사내 TV로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LG그룹은 그룹 전체의 시무식을 1월5일 개최기로 했으며, LG화학 등 주요 계열사들도 5일에야 시무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시무식을 갖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반기업정서 해소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Chemical Journal 2004/01/05>